

20세기 초와 20세기 말의 전통한복 착용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Traditional Korean Costume *Hanbok*  
Worn in the Early and Late 20th Century\*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부교수 김 찬 주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홍 나 영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교 수 유 혜 경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부교수 이 주 현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 of Incheon  
*Associate prof. : Chanju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en's Univ.  
*Associate prof. : Nayoung H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 of Incheon  
*prof. : Haekyung Yu*  
Dept. of Clothing Environment, Yeonsei Univ.  
*Associate prof. : Juhyeon Lee*

◀ 목 차 ▶

- |                   |                                 |
|-------------------|---------------------------------|
| I. 서 론            | V. 20세기 초와 20세기 말<br>한복유형의 비교분석 |
| II. 20세기 초 한복 유형  | VI. 결 론                         |
| III. 20세기 말 한복 유형 | 참고문헌                            |
| IV. 한복유형의 빈도분석    |                                 |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학분야 중점지원 연구장려금에 의해 시행 되었음

## &lt; Abstract &gt;

Korea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during the last century in many aspect of society,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 in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our traditional culture shown by costume as well as examining the aspects of the changes of traditional clothing according to age, by comparing the differancies of our traditional dress *Hanbok* between early and the late of the 20th century. Analysis of photographs showing *Hanbok* of both ages was used. 155 photographs of people wearing traditional *Hanbok*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ere collected from the photo collection books portraying various living conditions of common people at that time. 748 Photographs of *Hanbok* worn today were obtained by taking pictures of various occasions like wedding ceremonies in 5 big cities during 1999. The process of analysis consists of 3 stages: setting standards, sorting, and grouping by positioning. The results showed that traditional *Hanbok* worn in the early 20th century has maintained its basic silhouette and design during the century, but the methods of color coordination, ornamentation, construction have undergone many changes in detail. Consquently, traditional frame exits, but actually there are many variations of tradition produced by individual tastes and fashion trend. These changes show that continuing influx of the western culture which has made enormous social changes in Korea had an influence even on *Hanbok*.

**주제어(Key Words):** 20세기 초(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말(the end of the 20th century), 전통한복(traditional Korean costume), 착용비교 (comparison of wearing cloth)

## I. 서론

## 1. 연구목적

의복에는 그 시대의 정신과 생활 양식을 포함한 문화가 반영되며, 특히 전통 복식은 전통 문화의 상징의 하나로서 인정되어왔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복식 또한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그 변화의 배경에는 정치, 경제, 산업발전, 문화, 가치관,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혼합되어 작용하며, 변화의 방향은 그 시기에 가장 지배력이 큰 문화의 특성에 의해 영향받는다라는 사실은 나이지리아, 터키, 과테말라 전통복식의 변화를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sup>1)</sup>. 이는 한국의 근세 문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조선시대 말엽에 서양 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 양식과 문화는 서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통 복식 보다는 서구 복식이 현대 한국의 복식 문화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서구 문화와 서구 복식의 지배적 영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새로운 문

화적 흐름으로 1980년대에 등장하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 따라 동서양의 문화적 접목이 활발히 전개된 결과 20세기 말에는 동양의 전통 문화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재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동서양의 문화적 접목은 복식의 유행에도 반영되어, 동서양의 전통적 요소가 절충된 세계주의(cosmopolitanism)풍 주제는 20세기말의 주요 패션 트렌드 테마로서 꾸준히 부상되어 왔고 이러한 트렌드에 부응한 몇몇 현대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은 전통 한복의 요소들을 서구의 의상에 접목시킨 의상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문화적 접목이 시도되어 온 현 시기에 있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반영하는 전통 한복을 재조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문화란 고정 불변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1) Eicher & Erekosima, 1995; Hamilton, 1997; Jirousek, 1997; Moreno, 1997

주요 배경으로부터 종합적인 영향을 받아 총체적으로 변모해가는 속성을 지니며, 특정한 시대의 전통 문화의 개념과 양상도 당대의 주요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변모해 간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 문화도 그것이 전개되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전통 문화의 시대적 차별성은 전통 복식에 상징적으로 반영되므로, 서로 다른 시대의 전통 복식을 비교해 보는 것은 전통 문화의 변화를 가리는 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세기는 한국에 있어 외국에 대한 개방이 시작되고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 내전, 산업발전과 서구문물의 본격적 유입 등 많은 역사적 사건과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통복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화가 극심하였던 20세기라는 1세기 동안 우리의 전통복식은 과연 얼마나 변화하였으며, 또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전통한복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말로서 아직 서구 문화의 유입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지 전인 20세기초와, 서구 문화가 충분히 전이되었고 오히려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20세기말의 두 시대를 선정하고, 양 시대의 전통 한복의 특성을 사진자료분석을 통해 비교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 시대의 전통한복을 비교하고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따른 전통복식의 변화 양상을 고찰할 뿐만 아니라 복식을 통하여 우리 전통 문화의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

## 2. 선행연구고찰

20세기의 전통한복의 변천에 대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에 임한 시기는 1980년대 이후로, 급격한 서구화의 물결 속에 잊혀져 가는 전통과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필요성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먼저 이경자<sup>2)</sup>는 한국 의생활에 있어 또 하나의 변혁기인 8·15해

방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80년까지의 복식 변천을 정기 간행물과 사진, 실물 등을 고찰하여 결과를 정리하였고 10년 단위로 대표적인 양식변천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해방이후의 의생활 변화 양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이송희<sup>3)</sup>는 1876년-1910년 한일합방 전후를 중심으로 남녀 복식의 양식변화를 살펴보고, 그 배경이 되는 사회개혁의 동태를 알아봄으로서 복식변천의 요인을 찾고자 했다. 그는 조선조 후기 개화사상이 움트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실학의 영향, 천주교 및 기독교의 전래, 동학의 영향 등을 복식변천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서명자<sup>4)</sup>는 한복이 양복과 이중구조를 이루기 시작하는 개화기 이후부터 1984년까지의 한복변천을 여자 한복인 치마·저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향후 현대한복의 방향까지 모색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남윤숙<sup>5)</sup>은 1900년대 이후부터 1969년까지 한국여성이 착용하는 의복이 한복에서 양복으로 이행되면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측면과 함께 내재된 속성이 변화하는 요인 및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진미희<sup>6)</sup>는 서양복의 홍수와 급진적인 유행의 흐름 등으로 인해서 고유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 한복을 재인식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한국전쟁이후 1990년대까지 한복이 연대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는가에 대해 여성잡지에 나타난 사진을 통해 한복양식과 장식등 디테일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황의숙<sup>7)</sup>은 1884년에서 199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국 여성의 전통복식이 시대적, 사

- 2) 이경자(1981), 『한국복식사론』, 서울:일지사, pp.330-346
- 3) 이송희(1984), 『개화기 복식의 변천과 그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서명자(1985), 『현대한복에 대한 연구 -여자 한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남윤숙(1990), "韓國現代女性服飾制度의 變遷過程研究", 『복식』14호, pp. 99-118
- 6) 진미희(1990),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이후 여자한복을 중심으로-", 『복식』, 제 15호, pp.149-166
- 7) 황의숙(1995),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pp. 289-310

회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조사하여, 개화기 이후 한복이 개선되고 예복으로 정착화되어 가는 현대 한복의 변화과정을 시대적, 사회적 요인들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이 밖에 한복이 양장으로 대체되는 과정과 대체된 이후의 양장변천과정의 추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다수 있다<sup>8)</sup> 그 중에서도 이명희(1981)와 이유허·김진구(1995)는 개화기이후의 복식변천과정을 문화전파이론과 관련지어 사회적 제도변화와 그로 인한 동요 등과 같이 연결지어 분석하였고 김경희·조효순(1997)은 개화기 복식이 어떤 국가적 사회적 변천요인에 의하여 우리에게 수용되고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시켜 관찰해보고자 했다. 연구의 대상은 새로운 가치관의 대두, 민중의 사회개혁, 여성의 근대 교육론의 대두로 분류하고 집단복식의 도입으로 인한 일반 여성복식, 전도부인의 복식, 여학생 복식, 간호원 복식, sports wear 등으로 선택하여 이에 따른 복식 개량의식이 일반 여성복식에 어떠한 변천요인이 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특히 이화학당을 비롯한 여학생들의 복식이 일반 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들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개화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복의 변천과정을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형태적인 변화를 추적하거나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들과 관련지어 변천요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복양식의 변화나 전체적인 사회체제 변화와 의복변화의 관계들은 알 수가 있으나 같은 시기에서도 발견되는 개인적,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고 있다. 특히 형태적 변화를 추적한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들은 문헌과 사진첩, 여성잡지, 신문, 잡지의 기사들로서 지역과 대상독자의 성격에 따라 편집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다소 논의의 소지가 있다.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치아래 문화의 상대적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특정 지역이나 민족의 전통복식의 특성과 현대적 변화를 연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대

기적 형태변화를 추적하거나 전체적인 사회제도와 의 관련을 분석하는 국내 연구와는 달리 주로 표본을 선정하여 일정기간동안 함께 거주하며 관찰하는 방식의 민족학지(民族學誌, Ethnography)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sup>9)</sup>. 지역에 국한되기는 하나 민족학지에 의한 연구들은 상당히 심도있게 특정 지역이나 민족들의 삶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의복의 본질을 묘사하고 나아가 사회체제의 변화에 반응하는 개인적 삶의 변화와 다양성이 의복의 선택에 반영되고, 이것이 곧 전통복식 변화로 나타나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연구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Hunt와 Sibley<sup>10)</sup>

- 8) 임숙자·류은정·박혜원(1994), "개화기 이후 여성복식의 100년 변천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2권 2호, pp. 203-224  
이명희(1981), "근대 한국복식의 변화 요인", 『복식』 5호, pp. 153-164  
이유허·김진구(1995), "우리나라 양복수용 과정의 복식 변천에 대한 연구", 『복식』 26호, pp. 123-144  
김경희, 조효순(1997), "한국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천요인 -집단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32호, pp. 149-162  
조효순(1997), "여학생 복식이 한복변천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호
- 9) Arthur, L. B. (1997). "Cultural authentication refined: the case of the Hawaiian Holoku",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3), pp.129-139  
Eicher, J. B., & Erekosima, T.V.(1980), "Distinguishing non-western from western dress: The concept of cultural and authentication(Abstract)",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1980 National meeting of proceedings*, pp. 83-84  
Hamilton, J. (1990). "Silkworms of the east must be pillaged: The cultural foundation of mass fash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4), pp. 40-48  
Jirousek, C. (1997). "From traditional to mass fashion system dress among men in a Turkish villa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4), pp. 203-215  
Moleno, J.(1997). "Socio-cultural influences upon aesthetic preferences of Indigenous Guatemala women", *Understanding Aesthetics for the merchandising & design professional*, N.Y.: Fairchild Publications, pp. 100-2  
Lynch, A., Detzner, D. F. & Eicher, J. B. (1995), "Hmong American new year rituals: Generational bonds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3(2), pp. 111-120

(1994)의 연구와 같이 반드시 민족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진자료를 이용해 특정 시기의 전체적인 의복변화와 개인별 다양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다. 이들은 1890년에서 1914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들의 사진자료들을 이용하여 그 시기의 의복변천을 관찰하였고 이 것을 같은 시기의 전국잡지에 실린 의복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진 속의 의복은 그 시대 대표적 잡지의 의복과 전체적 흐름은 같으나 잡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여러 특이한 스타일들이 발견되어 전체적인 의복양식의 변천 속에서도 개인의 다양한 기호를 함께 엿볼 수 있었다. 이로써 사진자료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그 시대 의복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알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전통한복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착용되고 있는 실제 한복의 모습을 자료로서 사용하고 이들을 객관적 기준아래 분석할 때 전체적인 윤곽과 함께 지역별, 개인별 다양함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 3.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통 한복을 착용한 사례의 사진 자료들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한복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당시 여성의 한복 착용모습이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 말의 전통 한복에 관한 자료로는 조선 시대 말의 일반인의 다양한 생활상을 담은 사진자료집<sup>10)</sup>으로부터 추출하였다. 현재 한복착용을 관찰한 결과 남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20세기 초의 경우에도 여자들의 한복모습만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료의 내용은 집안에서 입는 평상복, 나들이 차림, 혼례와 상례, 기생수련과 같이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였으며 왕실 여자들의 차림이나 원삼이나 활옷같이 특정한 용도를 가진 의복은 제외하고 사

대부나 평민 여자들의 일상적 옷차림을 선택하였는데, 총 155장의 조선시대 말의 전통 한복 사진들이 자료로서 사용되었다. 대다수 사진이 촬영된 시기는 1890년~1910년이고 지역은 도읍이었던 한양을 비롯 전국 각지의 사진들이 포함되었다. 자료는 거의가 흑백사진이었고 이중 12장은 문헌의 고증을 받아 후대에 채색된 것이다. 사진자료에서 관찰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들은 그 시대의 생활상과 복식에 대하여 서술한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이 자료들을 대상으로 가장 빈도가 높고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한복 유형들을 선정하고 이를 현대 한복의 비교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착용하는 전통한복의 자료는 현대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착용되고 있는 다양한 전통한복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수집되었다. 우선, 지역문화에 의한 편차가 자료수집에 개입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서울뿐 만 아니라 광역시중 대전, 부산, 광주를 포함하였고, 신혼여행을 비롯한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 조사지역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결혼식장은 2곳 이상(고급, 일반), 전통문화 및 예술과 관련이 깊은 거리, 신혼부부 결혼사진 촬영장소로 분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계절특성을 고려하여 1999년 중 4-5월(봄), 7-8월(여름), 9-10월(가을), 11-12월(겨울) 중 각 장소를 1-2회 방문하고 각 방문마다 최소 2시간 관찰 촬영하였다. 이외의 다른 장소도 각 지역별로 수시 방문하여 촬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748장이 수집되었으며, 이중 사진 상태가 좋지 않거나, 뒷모습이나 모습의 일부만이 나온 경우, 아동한복, 전통 혼례복을 제외한 총 477장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10) Hunt, P.K. & Sibley, L. R. (1994), "African American women's dress in Georgia, 1890-1914 a photographic examin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2), pp.20-26

11) 조풍연,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편-』, 서문당, 1986  
조풍연,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 -생활과 풍속편-』, 서문당, 1996  
최석로, 『민족의 사진첩. III. 민족의 멋과 예술, 풍속』, 서문당, 1998

연구방법은 수집된 현대 한복자료에 대해 gestalt 원리에 입각하여, 전체적인 이미지에 따라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한복의 경우 치마, 저고리의 기본 형태 안에서 배색, 장식 등을 달리하여 변화를 주고, 색상과 장식 등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임으로, 각 디자인 요소에 따른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찰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분석 과정은 기준설정, 분류 그리고 배치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20세기 초의 한복을 기준으로 볼 때 현대 한복은 전통을 유지하거나 변형한 정도의 차원(전통-변형)과 장식의 정도에 따른 차원(장식이 많음-적음)이라는 2개의 기준에 의해 분류가 가능했다. 두 차원의 분류기준을 가지고 공통된 특징이나 이미지를 보이는 사진들을 그룹으로 묶어 보니 25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졌다. 다음 분류기준에 따라 이들 소그룹들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통변형정도를 가로축으로, 장식정도를 세로축으로 하여 배치(포지셔닝)하였다.

포지셔닝 결과 형태변형정도에 따라 전통유사, 전통과 현대의 혼합, 전통변형의 3단계로 크게 묶여졌고 장식정도에 따라서는 없음, 적음, 많음의 3단계로 분류가 가능했다. 각 그룹들에 대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빈도분포를 구하였다.

## II. 20세기 초 한복 유형

1900년대의 생활상을 촬영한 사진자료집에서 여성들의 한복 입은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점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1900년대 초반부의 여자한복은 치마저고리가 기본이었으며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집안 일을 하거나 외출, 잔치 등 모든 생활에 착용되고 있었다. 형태를 보면 저고리가 매우 짧은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따라서 저고리 밑으로 치마허리가 밖으로 드러났다. 후대로 갈수록 가슴을 가릴 정도의 길이가 긴 저고리들이 나타났고 지역에 따라 짧은 저고리와 긴 저고리들이 함께 착용되었다.<sup>12)</sup> 고름은 지금처럼 넓지 않고 좁고 짧아 허리근처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 치마에는 허리를

가슴에 묶은 끈을 길게 늘어뜨려 장식효과를 주었다. 다만 저고리가 짧은 경우에는 저고리 밑으로 흰 치마허리가 드러나 보이게 된다.

사진자료는 대부분 흑백사진이라 정확한 색상배합과 무늬는 볼 수 없었지만 약간의 채색사진과 흑백사진에 나타난 명암의 차이를 관찰하고, 당시 복식에 관한 문헌들을 참고한 결과 조선 복식은 백색과 옥색이 주조를 이루고 남색, 자색 등으로 강조를 한 차분한 색채조화를 보였고 원색은 혼례복과 같은 예복과 어린이옷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당시는 상하의에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하여 색상대비 조화를 즐기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치마저고리의 배색도 예외가 아니었다. 즉 치마저고리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명도나 색상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저고리가 밝은 색이면 치마가 어두운 색, 그 반대로 저고리가 어두운 색이면 치마가 밝은 색일 경우도 있고 때로 흰 저고리에 옥색치마와 같은 고명도 색상간의 배색, 혹은 저명도 색상간의 배색도 볼 수 있다. 백색이나 소재의 경우에만 치마저고리를 같은 색으로 통일하여 입었으며 이 때 회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문헌에 의하면 전통한복의 색채는 고명도, 저명도의 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않는 데, 자연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한 것이 그 까닭이라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 동화하려는 한국인의 취향에 합치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장식은 주로 다른 색의 천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강조점을 주는 형태의 소위 '회장'을 이용하였다. 회장은 고름만 댄 경우, 끝동과 고름을 같이 한 반회장, 깃, 고름, 소매끝을 한 경우, 그리고 깃, 고름, 끝동, 겨드랑이부근의 결마기까지 다른 색의 천을 댄 삼회장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색이나 남색과 같은 산뜻한 색상의 회장장식은 별 장식이 없는 단조로운 한복구조에 흥미의 중심점이 된다. 그러나 회장저고리와 함께 아무런 장식이 없는 민저고리도

12) 김영자(1992),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조효순(1992), 『한국 복식 풍속사 연구』, 일지사  
 13) 금기숙(1995),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로 가사(家事)나 밭일, 장사 등 노동을 하는 장면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치마 저고리의 배색이 다른 각종 조합에 저고리의 화장여부에 따른 변화가 더하여 각각 다양한 차림새가 만들어졌다. 더욱이 평양에서는 배자, 개성에서는 마고자와 같은 것으로 저고리 위에 덧 입기도 하였고, 부녀자들은 외출시에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두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출시에 두루마기에 아얌이나 조바위를 착용한 모습도 많이 발견되었다.

문양은 일상적인 의복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의복의 표면이 여백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된 경우에도 문양의 크기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었다. 특히 직물의 바탕무늬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의복의 색상과 거의 동일하여 더욱 눈에 띄지 않았다. 전통복식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자연문과 기하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상징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목단은 부귀를, 연화는 고결함, 박쥐나 석류는 다남(多男)을 상징했다.<sup>14)</sup>

전체적인 실루엣은 지금과 달리 과도하게 풍성하지 않고 여유있게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이유는 저고리의 깃이 높게 달려 있어 목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고 어깨와 품, 소매통도 몸에 여유있게 맞는 정도였으며 치마를 둘러 입거나 활동하기 편하게 건어 올린 후 허리띠를 띤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인 듯하다.

사진자료들 중에서 연령과 신분, 상황에 관계없이 빈도가 높고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한복의 형태를 찾아보니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고 이를 20세기 말의 한복모습과 비교할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전통형 1 : <사진 1s>와 같이 치마와 저고리의 색이 각각 다르며 저고리의 색이 열으면 치마가 짙고 저고리의 색이 짙으면 치마의 색이 옅은 경우가 많았다. 깃과 고름은 저고리의 색과 같은 민저고리이다. 저고리가 하나의 색으로 통일되어 전체적으로 소박한 느낌을 전달한다.

전통형 2 : <사진 2s>와 같이 치마와 저고리의 색이 다르고 고름을 주로 짙은 색, 그 중에서도 자주

색을 주로 사용하여 강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전통형 3 : <사진 3s>와 같이 치마와 저고리의 색이 다르며 깃과 고름, 끝동에 다른 색을 사용한 회장저고리로서 대비되는 색상이 깃, 고름, 소매 끝에 반복적으로 연출됨으로 시각적 리듬감을 연출한다.

전통형 4 : <사진 4s>와 같이 치마와 저고리의 색이 다르고 깃과 고름, 끝동, 그리고 결마기를 만든 삼회장저고리이다.

### III. 20세기 말 한복 유형

#### 1. 전반적인 착용경향

현재 착용되고 있는 전통한복의 모습은 지역에 관계없이 4 계절 모두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결혼식을 주도하는 부모들과 결혼식에 참석한 일부 하객들이 한복을 착용하였고 계절에 따른 소재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일상복으로 많이 입는 생활한복은 결혼식장에서는 거의 착용되지 않았다. 신랑신부들의 한복차림은 결혼식을 치르기 전 고궁 등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곳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계절에 따른 차이가 커 봄·가을에 가장 많고 여름과 겨울에는 눈에 띄게 줄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봄과 가을에 입는 신랑신부들의 한복 색상과 스타일이 매우 달랐던 사실이다. 결혼식장 외에 전통한복을 착용한 모습은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거리에서 종종 보였고 회갑이나 고회와 같은 가족 축하모임이 열리는 연회장, 그리고 전시회나 리셉션과 같은 행사장에서 소수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한복들은 대부분 그 모임을 주최하는 주빈들만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남녀가 함께 한복을 착용했던 100년 전과는 달리 현재에는 남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복을 거의 입지 않고 양복을 입기 때문에 한복은 여

14) 금기숙(1995),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유희경·김문자(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그림 1~4, 1a~4b> 20세기 말 전통한복의 전통형 ①





<그림 1~4, 1a~4b> 20세기 말 전통한복의 전통형 ②

성들만이 입는 것이 관습화되어 가고 있었다. 아이들도 결혼식장이나 행사장에 한복을 입고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전반적으로 치마저고리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였으며 다만 색상의 차이와 장식을 한 위치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저고리는 주로 가슴을 겨우 덮을 정도의 길이였으며 소매는 둥근 배래선을 사용하였다. 고름은 넓고 길며 때로 긴 고름의 경우 다른 색의 2개의 고름을 달아 모두 3개의 고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깃은 깃 길이가 길어져 목둘레선이 V자형으로 깊이 파였다. 치마폭은 넓고 안에 페티코트(petticoat)를 입어 A자형으로 벌어지는 실루엣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전통한복을 입을 때 사용하는 소품들로서는 노리개가 가장 많았고 뒤꽂이 같은 머리 장식을 위한 도구들도 종종 사용하였다.

## 2. 20세기 말 한복의 유형

20세기 초의 한복을 기준 삼아 20세기 말 현대 착용되고 있는 한복들은 형태 변형과 장식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즉, 전통형(1-4), 혼합형(5-7), 변형형(8-13)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다시 세부적으로 장식정도가 없음(a), 적음(b), 많음(c)의 3단계로 나누어졌다. 한편 전통형의 경우에도 회장을 단 2~4유형 중 2, 3의 유형은 다시 고름을 자주색으로 하였던 것과 치마색을 사용한 경우로 나뉘어졌으므로 이를 “”로 표시하여 구별하였다.

### 1) 전통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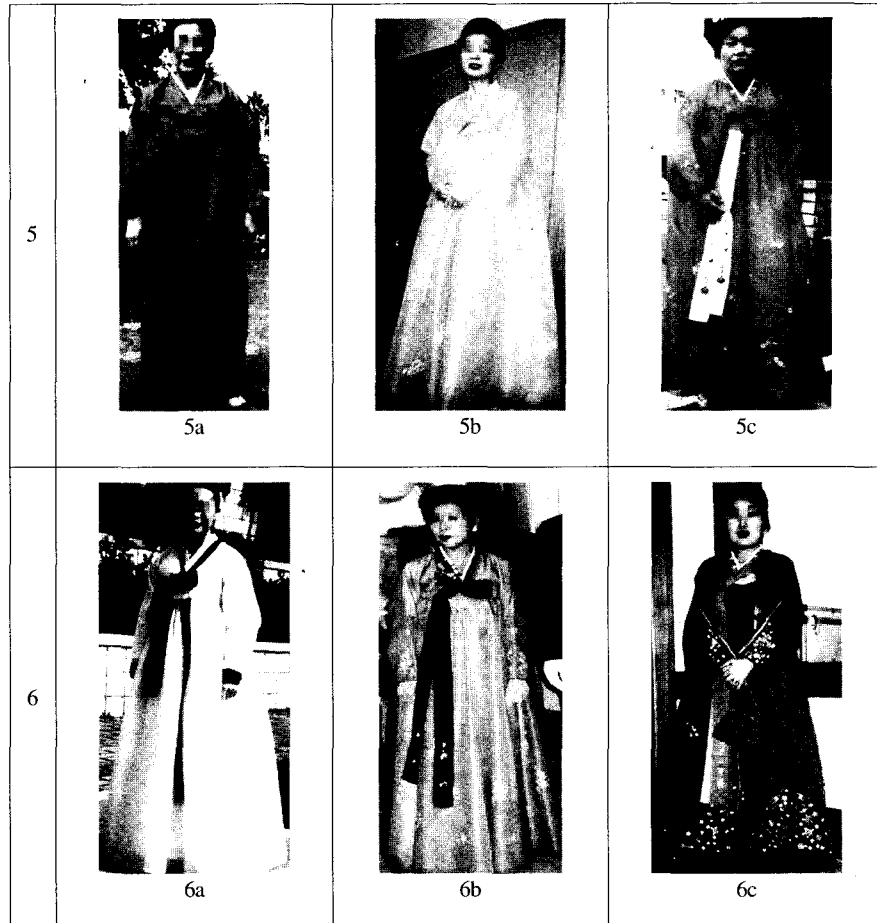
전통형은 20세기 초 한복의 모습을 가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스타일로서 치마 저고리의 배색과 고름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전통형 1(a, b, c)은 과거와 같이 치마저고리의 색이 다르고 저고리는 회장이 없는 민저고리이며 고름은 저고리의 색과 같다. 전통형 2는 치마 저고리의 색이 다르고 고름만 다른 색을 사용한 것이다. 고름의 색이 자주색인 경우는 전통형 2, 치마색으로 고름을 한 것은 전통형 2'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전통형 3 역시 깃,

고름, 끝동 등 회장의 색을 자주로 한 전통형 3과 치마색으로 회장을 댄 전통형 3'로 나뉘었다. 이러한 특성은 20세기 초 고름에 회장을 자주색으로 하되 끝동의 경우 남색을 사용한 풍습과 남색 치마가 흔히 입혀졌던 이유 때문에 아예 회장 자체를 치마색으로 통일하게 된 듯 하다. 겨드랑이에 삼각형의 결마기를 댄 전통형 4는 20세기초에는 많이 착용되었지만 현재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20세기 초 한복의 저고리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가슴위로 올라오는 짧은 길이와 가슴을 충분히 가릴 정도의 긴 길이가 혼재하였던 것에 반해 현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저고리의 길이는 가슴을 겨우 가리는 정도의 길이로 통일되어 있다.

장식면에서 보면 a는 장식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고, b는 깃과 고름끝, 소매부리, 치마 아래에 약간의 수나 그림 등 장식을 했는데 무늬의 색상이 치마저고리 색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적으로 고상하고 단아한 이미지가 전달된다. c는 b와 장식의 위치는 같으나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전체적으로 장식적이고 자수의 색상이 치마저고리와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장식이 눈에 선명하게 부각되어 화려한 예복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무늬는 주로 꽃이나 식물의 덩굴, 구름, 파도, 동물과 같은 자연무늬를 주로 이용하였고 때로 수복(壽福)같은 한자나 기하학적인 대담한 무늬도 보였다. 1970년대에 한복이 예복화 되면서 장식성이 강조되어 양어깨, 치마단 둘레와 자락, 저고리 도련에까지 각 종 금박과 자수, 날염기법이 행해졌던 사실<sup>15)</sup>과 비교했을 때 현재 전통형 한복 a와 b의 장식경향에서 보이는 단아한 이미지와 자연무늬, 중간 색 조화들은 비교적 전통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전통형을 전체적으로 볼 때 20세기초에 비해 저고리와 치마의 품이 넉넉해진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치마저고리의 색을 다른 색으로 조화시키는 점과 회장의 부위와 색상도 20세기 초와 같아 형태 면에서는 비교적 전통이 잘 유지되어 왔다고 느껴진다.

15) 진미희(1990), 이경자(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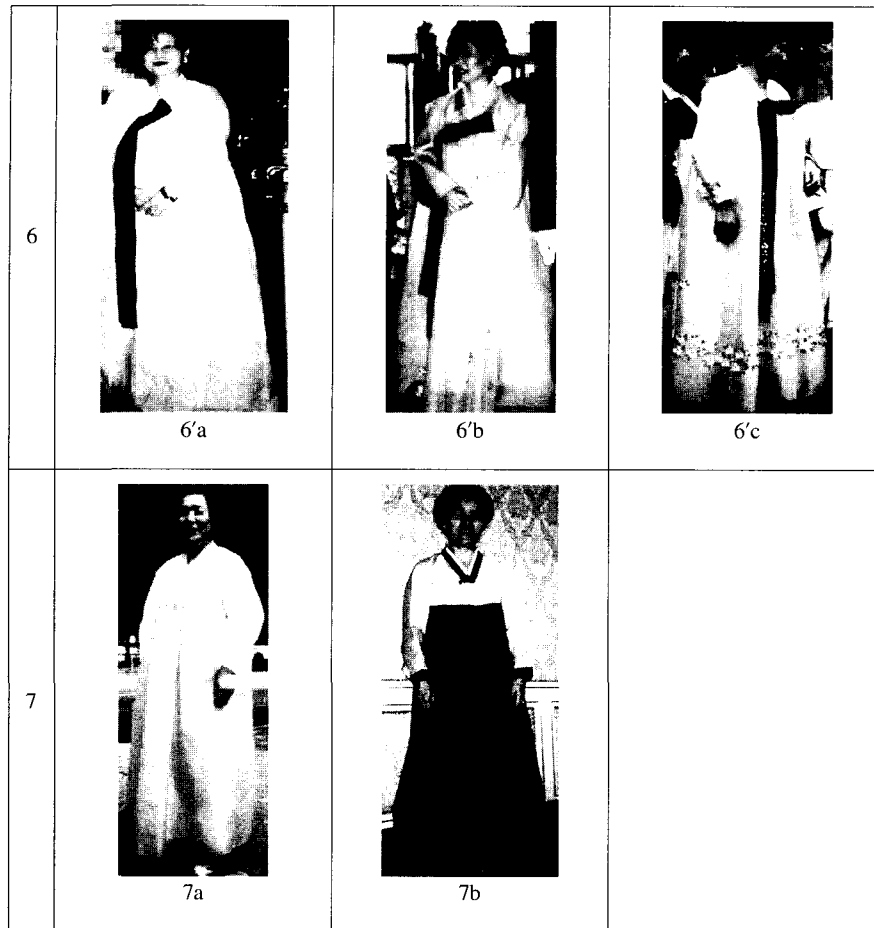
〈그림 5a~6c〉 20세기 말 전통한복의 혼합형 ①

그러나 장식의 정도는 훨씬 강해졌고 무늬의 색상도 과거에는 바탕색과 은은한 색의 조화를 보였으나 현대에는 대조적인 색상으로 장식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어 전체적으로 화려해진 느낌을 갖게 한다. 이처럼 한복의 전통성이 전체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색상이나 장식에서 개인차가 큰 것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서양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한복은 실용화를 위해 여러 번 스타일에 변화를 보였는가 하면 70년대 이후에는 일상복의 기능은 약해지고 예복화 되면서 형태변형과 강렬한 색상대비, 화려한 장식이 성행한 적도 있었다. 그러

나 88올림픽 개최, 그리고 90년대 들어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전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통미를 살린 한복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전체적인 한복의 경향은 전통을 따르지만 부분적으로는 개인의 기호나 연령, 지역, 제작한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혼합형

혼합형은 세가지 스타일로 이루어진다(그림 혼합형 5a-7b 참조). 먼저 혼합형 5(a, b, c)와 혼합형 6(a, b, c)을 보면 공통적으로 치마저고리를 동일한



〈그림 6'a~7b〉 20세기 말 전통한복의 혼합형 ②

색상으로 입었는데 〈그림 5〉와 같이 깃과 고름에 치마저고리와 같은 색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림 6〉처럼 다른 색상을 이용하여 강조하기도 했다. 치마저고리를 같은 색으로 입는 것은 1960년대 이후 서양의복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보편화되어 왔다<sup>16)</sup>. 혼합형 7(a, b)은 고름 대신 단추나 매듭단추, 브로우치를 이용하여 저고리를 여미는 스타일이다. 한복에서 고름 대신 단추를 사용하는 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생활개선운동의 하나로써 한복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실용복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며<sup>17)</sup> 그 후 섬유산

업의 발달로 기성복의 기틀이 잡히면서 한복이 일상실용의 기능을 상실하고 예복화되면서부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추는 90년대 생활한복이 성행하면서 기능적 차원에서 다시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개인에 따라 전통한복에도 사용하고 있다. 주로 여름철 한복에 보이고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이 사용했다.

혼합형 역시 장식정도에 따라 a, b, c의 3단계로

16) 진미희(1990), pp.149-166

17) 앞 글

구분된다. 장식의 부위나 정도, 색상, 문양들은 전통형 한복의 경우와 거의 같아 a에서 c로 갈수록 장식의 범위가 다양하고 색상도 화려해졌다. a와 b단계에서는 흰색, 분홍색, 연노랑 과 같은 화사하고 부드러운 파스텔조의 색상들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c단계의 한복들에서는 강한 원색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5a와 같이 장식이 배제된 수수한 한복은 나이 많은 어른들만 주로 착용했다.

### 3) 변형형

변형형은 색상배합이나 구성적 측면에서 전통 한

복을 변형시켜 전통한복과는 다소 다른 이미지를 전달하는 한복들을 의미한다. 변형형인 <그림 8c>와 <그림 9c>는 형태는 전통형에 가까우나 색상배합이나 소재사용에서 전통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즉 <그림 8c>와 같이 매우 현대적인 느낌의 패턴이 프린트된 소재를 이용하거나, <그림 9c>와 같이 그라데이션(gradation) 염색기법과 무늬를 합성하여 마치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보는 것 같은 화려하고 복잡한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특히 <그림 8c>는 빨강을 중심으로 한 강렬한 색상들의 대비조화가 주를 이루어 착용자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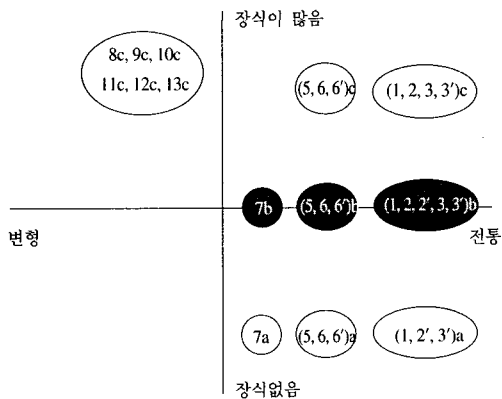


<그림 8c~13c> 20세기 말 전통한복의 변형형

〈그림 10c〉에서 〈그림 13c〉는 치마나 저고리의 구성방법이나 착용방법을 변형시킨 경우이다. 〈그림 10c〉와 〈그림 11c〉는 치마의 변형을 시도한 것이다. 치마를 겹치마와 속치마의 이중으로 제작하고 색을 각각 달리하여 속치마가 겹치마 밑으로 보이게 하였는데 치마단 부분에 수를 놓거나 〈그림 10c〉처럼 스란단을 입체적으로 변형하거나 선(trim)을 둘러 장식효과를 낸다. 또는 〈그림 11c〉와 같이 치마를 8폭이나 12폭으로 잘라서 재단하여 봉제할 때 이음선에 다른 색의 천을 대어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림 12c〉는 착용방법의 변형을 시도한 스타일로 치마저고리를 안에 입고 반소매가 달리고 옆이 트인 무릎길이의 긴 겹옷을 겹쳐 입는 스타일로 두루마기를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3c〉는 저고리의 변형을 시도한 경우로 생활한복 저고리의 디자인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전통 한복과 같이 예복으로 최근 사용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변형형의 한복들은 공통적으로 자수나 그림 등으로 장식의 정도가 심해 c 단계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 3. 한복유형의 포지셔닝(Positioning)

〈그림 14〉는 위에 열거한 현대 한복의 다양한 유형들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통변형의



〈그림 14〉 20세기 말 전통 한복 유형들의 포지셔닝

정도(전통-변형)와 장식정도(장식 없음-장식 많음)의 두가지 축을 사용하여 포지셔닝한 결과이다. 전통에 가깝거나 전통과 현대의 혼합을 시도한 한복스타일들은 형태나 색상배합의 차이가 있을 뿐 장식의 정도는 3단계의 일정한 규칙을 보이고 전통을 변형한 한복들은 공통적으로 장식의 정도가 심했다

## IV. 한복유형의 빈도분석

〈표 1〉은 현대 한복의 유형별로 빈도를 집계한 결과이다. 먼저 형태 변형의 차원에서 보면 전통형이 51.0%로 가장 많고 혼합형은 31.1%로 그 다음, 변형형은 17.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전통형 중에서는 치마저고리의 색이 다르고 회장을 낸 전통형 3이 우세하고 다음으로는 상하동색의 한복인 혼합형 5가 우세하였다. 단일유형으로는 전통형 중에서도 상하 이색의 한복에 치마색으로 회장을 대고 장식을 화려하게 한 전통형 3'c가 71 사례(16%)로 매우 우세하였다. 상하 이색 한복에 자주회장을 달고 다소 장식을 한 전통형 3b는 50사례(10%)로 그 다음 순위였고, 상하 동색 한복에 다소 장식을 한 혼합형 5b가 48 사례로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전통형 1~4그룹의 빈도합계(51.0%)가 변형형이나 혼합형 보다 다소 높아, 현대에도 전통에 가까운 한복스타일이 더욱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식의 정도를 보아서는 장식이 많이 된 것이 51.5%인 것에 비해 장식이 없는 것은 7.9%를 차지해 한복의 예복화 되면서 화려하게 장식하게 된 것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는 흔하게 착용되었던 거드랑이에 다른 색으로 결마기 장식을 한 회장저고리 스타일은 현대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혼합형중에서는 상하 동색에 중간정도의 장식을 한 한복인 5b형의 비중이 48사례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변형형에서는 어느 한가지의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모두 장식이 많은 형으로 나타나, 화려한 장식성을 추구할 때 변형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20세기말 전통 한복 유형별 빈도

형태	장식	장식 없음	중간	장식 많음	합 계	(%)	전체(%)
전 통		1a (15)	1b (13)	1c ( 8)	36	8.2	225 (51.0%)
		2'a ( 1)	2'b ( 3)	2c ( 1)	2 4	0.5 0.9	
		3'a ( 3)	3b (50)	3c (30)	80 99	18.1 22.5	
			4b ( 4)		4	0.9	
혼 합		5a (11)	5b (48)	5c (20)	79	17.9	137 (31.1%)
		6a ( 2)	6b (29)	6c (17)	48 5	10.9 1.1	
		6'a ( 1)	6'b ( 3)	6'c ( 1)			
변 형				8c (12)	12	2.7	79 (17.9%)
				9c (20)	20	4.5	
				10c (21)	21	4.8	
				11c (16)	16	3.6	
				12c ( 6)	6	1.4	
				13c ( 4)	4	0.9	
합 계		36(8.2%)	178(40.3%)	227(51.5%)	441	100	100

## V. 20세기 초와 20세기 말 한복유형의 비교분석

우리나라 민족이 전통적으로 착용해 온 한복이 한 세기의 차이를 두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20세기 초와 20세기 말의 한복착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한복의 전통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초 여자한복의 기본구조가 치마저고리인 사실은 20세기 말에도 변함 없었고 현재 착용되고 있는 25가지의 다양한 한복유형에서 느껴지는 형태와 실루엣의 느낌은 거의 대동소이하여 1세기를 흐르는 동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일면에서 한복의 전통성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빈도분석 결과 전통한복과 형태가 유사한 전통형의 빈도가 혼합형이나 변형형보다 높고 그 중에서도 치마

저고리를 다른 색으로 배합하고 회장을 낸 전통적 한복형태가 단일 유형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사실은 현대에도 여전히 전통적 한복 형태가 선호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지난 1 세기동안 한국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복은 많은 형태와 실루엣 변화를 거쳤으나 20세기 말 현재 착용되고 있는 한복에서는 오히려 전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에서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의 가치가 새삼 중요시되고 있는 작금의 문화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 2. 예복의 성격이 뚜렷해졌다.

서양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던 20세기 초의 한복은 대중의 일상복으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착용되었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난 현재 한복은 주로 여성들, 그 중에서도 기혼여성들에 의해서 착용되고 있고, 용도도 결혼식, 회갑연과 같은 집안의 예식을 위한 예복으로서 주로 착용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복식이 현대에서는 일상복으로서의 성격이 사라지고 예복으로서만 남으며 더욱이

여자들만 주로 착용한다는 사실은 Eicher와 Sumberg (1995)가 지적한 바대로 전통복식의 현대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한복이 일상적인 의복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고 예복화하게 된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산업이 발전하고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의생활에 있어 실용성과 간편성이 중요해졌고, 서양문물의 유입과 함께 서양식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서양의복이 일상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본다.

다만 한복의 성격이 일상복에서 예복으로 변화되면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면들도 있다. 20세기 초의 한복은 일상복으로 입었던 만큼 다소 기능성이 고려되었다. 즉 저고리는 품과 소매폭이 신체에 잘 맞는 정도였고 깃이 높이 달려있어 활동시에도 앞이 벌어지지 않으며 고름은 지금에 비해 좁고 짧아 장식용이라기보다는 묶어매는 기능에 충실했다. 오히려 치마허리를 묶었던 끈이 고름보다 더 길게 내려와 일종의 장식효과를 가졌다. 치마는 신분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발목을 겨우 덮는 길이이고 폭도 지금보다는 좁았으며 그나마 일할 때나 외출시에는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치마자락을 돌려 띠로 허리를 묶어 입었다. 전체적으로 일상복으로 입기에 그다지 불편해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현재의 한복은 과거에 비해 깃길이가 길어지고 소매의 폭은 넓어지고 배래선이 곡선으로 변해 전체적으로 저고리의 품이 여유있어 보이며 고름이 넓어지고 길이도 길어졌다. 치마의 폭은 매우 넓어지고 길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복이 일상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특별한 날을 위한 예복으로서 착용되면서 좀더 우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만들어진 듯 하다. 예복으로 착용하다 보니 치마를 8폭이나 12폭으로 잘라 더 넓히고 이음부분에 장식을 하는 기법이나 치마를 이중으로 제작하여 속치마가 겹치마 밑으로 보이게 한다든지, 치마선을 곡선으로 장식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구성법들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 3. 과거에 비해 다양성이 현저해졌다.

20세기초의 한복은 4가지 기본형으로 압축될 수 있었는데 반해 20세기말의 한복은 이들 외에도 전통을 변형한 여러 유형의 한복들을 포함한 13가지 형태와 3 단계의 장식정도까지 고려하면 총 2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과거에 비해 한복의 디자인이 훨씬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에는 유사한 한복스타일이 특정 연령대에서만 착용되거나, 특이한 스타일들이 한 지역에서만 발견된다든지, 그리고 시대별 특정 패션경향을 보여주는 한복스타일들도 다수 있어 나이와 특정 지역의 문화적 정서, 그리고 서양복의 유행경향이 한복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다수의 변형한복 즉 고름 대신 단추를 달거나, 깃이 마주치는 맞 깃을 사용하거나, 치마를 여러 쪽으로 나누거나, 여러 층으로 만드는 양식 등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의복선택에서 개인의 기호를 표현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과거에 비해 서양의복의 구성법을 한복에 도입하여 개인의 기호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한복스타일을 창조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자유로운 욕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포지셔닝 결과가 보여주듯이 25개의 다양한 유형들은 형태변형과 장식정도에서 공통성이 커서 각각 3단계의 비교적 체계적인 집단화(grouping)가 가능했던 사실에서 현대의 한복이 개인의 다양한 기호에 의해 선택되면서도 결과적으로 민족 고유의 공통된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장식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세기 초에 비해 20세기 말의 한복은 무엇보다도 색상과 장식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20세기 초의 한복도 색상의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하였지만 치마저고리를 다른 색으로 입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주로 자연염료를 이용하다보니 채도가 높지 않은 은근한 느낌의 색조들이 많았으며 치마는 옥색이나 남색류들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얼은 색의 저고리와 옥색치마, 자주회장은 가장 보편적인



색상배합이었다. 현재의 한복 색상은 매우 다양하여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던 빨강, 짙은 분홍, 보라, 청록, 검정 등 저명도, 고채도의 색상들도 과감하게 사용되었다. 더우기 치마저고리에 같은 색으로 이와 같은 강렬한 색조들을 사용하거나 현란한 색상들의 대담한 무늬를 사용한 예들도 많았다. 이러한 변화는 상하에 같은 색을 많이 사용하는 서양의복이 전해지면서 한복의 배색에도 영향을 미쳤고, 천연섬유보다 합성섬유를 소재로 이용하고 자연염료 대신 화학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원색조의 화려한 배색이나 무늬가 한복에 나타났다고 본다. 이처럼 오래동안 고수되어 오던 전통적인 배색의 관례가 깨어지고 다양한 색상들을 개인의 기호대로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사실은 의복 착용시 신분구별이나 관례보다는 개인의 기호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현대의 개인주의적 경향이 한복선택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비해 한복에서 장식의 양이 많아지고 장식의 색상이나 기법이 다양하고 화려해진 현상은 한복이 일상복에서 예복으로 성격이 전환되면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며, 생산방법의 변화와도 관계가 깊다고 본다. 과거에는 손으로 자수를 놓았는데 비해 오늘날은 주로 기계로 자수나 아플리케 등을 하니까 자연히 생산가가 낮아지고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어 전통한복에도 과도할 정도의 장식이 행해질 수 있었다.

#### 5. 특정 의복들은 필요성이 없어 자연 소멸되었다.

1세기 전에는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 없어진 한복의 종류로는 보온을 위해 저고리 위에 겹쳐 입던 겹저고리나 배자로서 현재 이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아마도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인하여 실내온도가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 겹쳐 입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거나 조끼와 같은 새로운 의복의 등장에 의한 것인 듯 하다. 한복의 소재로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특히 여성들이 외출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장옷이나 쓰개치마, 샛갓을 머리

위에 쓰던 풍속도 오늘날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 VI. 결 론

이와 같이 20세기 초의 전통한복은 1세기가 지나도록 기본적 실루엣과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옷의 용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배색이나 장식, 구성방법 등 세부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전통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개인의 기호차와 유행이라는 명분에 밀려 전통에서 벗어난 많은 전통의 아류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서양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서양식 현대화가 일반적으로 진행되었던 그간의 한국사회 변화상이 한복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서양에서 동양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세계적으로 동양과 서양 문화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한복은 어떤 방향으로 계승되어야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전통한복은 여차피 일상복으로서가 아니라 예복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형식과 내용이 다함께 충실한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연스러운 배색의 조화나 지나치지 않은 장식, 단아한 실루엣들은 전통한복이 가지는 아름다움의 진수이므로 이들을 잘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전통에 가까운 한복스타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이 전통을 변형한 한복보다 더욱 많이 착용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아직도 한복을 착용함으로써 전통이나 민족성을 느끼고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염료를 많이 이용하고 전통색 배합을 이용해 한복을 제작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그러나 전통을 잘 모르고 한복을 착용하는 대중과 청소년들을 위해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 계몽차원에서 교육시키는

일도 병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금기숙(1995).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 김경희, 조효순(1997). 한국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천 요인 -집단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32, 149-162.
- 김연선(1992). 광복 이후의 여자한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1920년부터 1969년까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자(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 남윤숙(1990). 韓國現代女性服飾制度의 變遷過程研究, 복식, 14, 99-118.
- 유희경, 김문자(1999).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 임숙자, 류은정, 박혜원(1994). 개화기 이후 여성복식의 100년 변천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2(2), 203-224.
- 박유신(1981). 저고리의 모형 및 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기전여전 논문집, 2.
- 서명자(1985). 현대한복에 대한 연구 -여자 한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자(1987). 전통복식의 미적고찰. 논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경자(1981). 한국복식사론. 서울: 일지사.
- 이경자(1982). 해방 36년의 복식 변천.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 이명희(1981). 근대 한국복식의 변화 요인. 복식, 5, 153-164.
- 이송희(1984). 개화기 복식의 변천과 그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유경, 김진구(1995). 우리나라 양복수용 과정의 복식변천에 대한 연구. 복식, 26, 123-144.
- 조풍연(1986).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편-. 서울: 서문당.
- 조풍연(1996).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 -생활과 풍속편-. 서울: 서문당.
- 조효순(1989). 복식. 서울: 대원사.
- 조효순(1992). 한국 복식 풍속사 연구. 서울: 일지사.
- 조효순(1997). 여학생 복식이 한복변천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
- 진미희(1990).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이후 여자한복을 중심으로-. 복식, 15, 149-166.
- 최석로(1998). 민족의 사진첩 Ⅲ. 민족의 멋과 예술, 풍속. 서울: 서문당.
- 황의숙(1995).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26, 289-310.
- Arthur, L. B. (1997). Cultural authentication refined: the case of the Hawaiian Holoku.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3), 129-139.
- Eicher, J. B., & Erekosima, T. V. (1980). Distinguishing non-western from western dress: The concept of cultural and authentication(Abstract).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1980 national meeting of proceedings*, 83-84.
- Hamilton, J. (1990). Silkworms of the east must be pillaged: The cultural foundation of mass fash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4), 40-48.
- Hunt, P. K. & Sibley, L. R. (1994). African American women's dress in Georgia, 1890-1914 a photographic examin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2), 20-26.
- Jirousek, C. (1997). From traditional to mass fashion system dress among men in a Turkish villa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4), 203-215.
- Moleno, J. (1997). Socio-cultural influences upon aesthetic preferences of Indigenous Guatemala women. *Understanding Aesthetics for the merchandising & design professional*. N.Y.: Fairchild Publications, 100-2.
- Lynch, A., Detzner, D. F. & Eicher, J. B. (1995). Hmong American new year rituals: Generational bonds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3(2), 111-120.